

전남 고령인구 비중 전국 1위… 2052년엔 49.6% 전망

국가데이터처 ‘2026 고령자 통계’

전남 65세 이상 전체 28.6% 달해… 전국 평균 21.6%
광주 19.1%…“농어촌형 돌봄·도시형 복지 수요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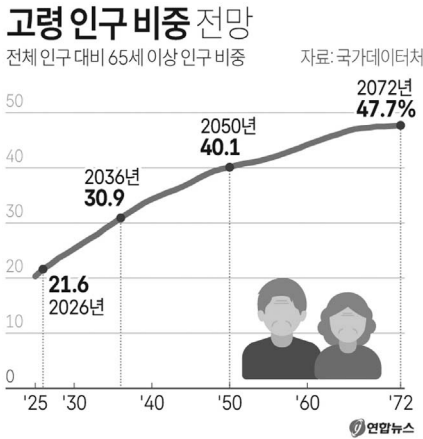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체 인구의 28.6%가 65세 이상으로, 2052년에는 절반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비 부담과 노후 소득 보장, 고령자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등 지역 차원의 대응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이 28.6%로 가장 높았고, 경북

27.6%, 강원 27.1%, 전북 26.7%, 부산 25.9%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모두 9곳이었다.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7.0%p 높았으며,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세종(12.3%)과 비교하면 16.3%p 차이가 난다.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4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인구 비중뿐 아니라 실제 고령인구 규모도 지역 인구 구조를 살펴보는 주요 지표인 만큼, 고령층의 생활 여건과 복지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광주의 고령인구 비중은 19.1%로 전국 평균보다 2.5%p 낮았다. 고령인구는 2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과 광주의 고령인구 비중 차이는 9.5%p에 달했다.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는 두 지역이지만 인구 구조와 고령층 복지 수요에는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전남의 고령화는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의 시도별 장래인

구추계에 따르면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8년 30.6%로 30%를 넘어선 뒤 2038년 40.8%, 2052년 49.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052년에는 전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이 되는 셈이다. 전남은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예상된다.

광주 역시 고령인구 비중이 2028년 20.9%, 2038년 30.4%, 2052년 38.8%로 상승할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전국 평균보다 낮더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는 의료와 돌봄, 노후 소득 문제와도 맞물린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53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본인 부담 의료비는 연간 125만6000원이었다. 고령층은 만성질환 관리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가계의 노후 생활을 압박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노후 소득 여건도 과제다. 2024년 고령층의 연금 수급률은 91.2%였지만,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3만7000원에 그쳤다. 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다수임에도 수령액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다. 실제 2024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 여부뿐 아니라 수령액과 다른 소득, 주거비·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고령자 가구의 증가도 주목된다. 2026년 가구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650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8.8%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38.0%로 가장 많았고, 부부 가구가 35.1%로 뒤를 이었다. 고령자 가구 10곳 중 4곳 가까이가 혼자 사는 가구인 셈이다. 고령층의 건강 악화나 위기 상황에 대응할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안전 확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은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과 이동 편의, 일상 생활 지원을 함께 살펴야 한다. 광주 역시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의료·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 소득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두 지역의 인구 구조 차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의 농어촌형 돌봄 수요와 광주의 도시형 복지 수요를 구분하되, 의료·복지 자원과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인구 증가를 단순한 인구 통계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와 소득, 주거, 돌봄을 아우르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제언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강태일 광주세관장, 광양LNG터미널 방문

에너지 수출입 지원대책 등 현장 의견 청취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1일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LNG터미널을 방문해 제2터미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관세행정 관련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LNG 탱크 증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태일 광주세관장은 중동전쟁발 위기 속에서도 에너지 수출입에 기여해 온 광양LNG터미널에 감사사를 표하면서 “수출

입기업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해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LNG터미널은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건설된 LNG 터미널로, LNG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LNG 및 LPG 선박 시운전, LNG 병커링 및 반출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1일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LNG터미널을 방문해 제2터미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관세행정 관련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농촌관광주간 확대…투어패스 최대 50% 할인

농식품부, 11월까지 문체부 ‘여행가는 가을’ 연계

농림축산식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여행가는 가을’과 연계해 매월 둘째 주에 운영하던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10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 다양한 농촌관광 자원 이용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연계한 농촌투어패스 할인율을 최대 50%로 확대하고, 전국 11개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과 연계한 신규 상품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농촌투어패스는 인구감소·관심지역 88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소그룹 단위로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기존 3개 지역 4개 상품에서 14개 지역 15개 상품으로 늘리고, 상품별로 40~50% 할인한다. 또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한 농촌체험 및 숙박 180개 상품(최대 체험 30%, 숙박 20% 할인), 농촌크리에이티브 17개

지역 56종의 농촌여행 상품(최대 50% 할인), 지역단위 농촌관광 8개 지역 71개 상품(최대 50% 할인)도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농촌형 위케이션(일+휴가)은 총 13곳에서 평일 기준 하루 5만원, 최대 5일까지 할인하고 여행자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국민 참여 이벤트도 이어진다. 전국 20개 스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인증하는 스타투어 이벤트는 오는 11월15일까지 진행하고, 농촌투어패스와 온라인 결제 플랫폼 등록 상품 구매자 대상 리뷰 및 캐시백 이벤트도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여행가는 가을 농촌관광 붐 조성을 위해 카카오톡과 다음에 농촌관광 가는 주간 및 으뜸촌 농촌체험마을을 소개 웹페이지를 연계해 11월 중순까지 집중 홍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헬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NH농협은행은 고객이 보유한 금 실물을 활용해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NH 골드채움신탁(실물형)’을 출시했다.

농협은행 “금 실물 맡기면 운용수익 지급”

서울 본점 2곳 ‘골드채움신탁’ 시범 운영… 취급점 확대 예정

NH농협은행이 골드바와 돌반지 등 보유한 금 실물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을 출시했다.

NH농협은행은 고객이 보유한 금 실물을 활용해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NH 골드채움신탁(실물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골드바와 돌반지 등 금 실물을 은행에 맡기면 신탁기간 동안 채취기금을 통해 해당 금을 운용

하고, 만기 때 프레스골드바와 운용수익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장 등에 보관하던 금 실물을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 삼성금거래소와 금 실물 신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상품 구조와 업무 절차, 전산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출시를 준비해 왔다.

상품은 우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와 중앙본부출장소 등 2개 영업점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후 운영 상황을 고려해 취급 영업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날 상품 출시를 기념해 1호 고객으로 직접 가입했다. 강 행장은 “고객이 소중하게 보유한 금 실물에 새로운 활용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맞춰 차별화된 신탁상품과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전남광주 주택시장 ‘숨고르기’…매매 상승폭 둔화

전주 0.02%서 0.01%로 축소…수도권과 온도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전주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시장은 나주시와 목포시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세시장은 목포시와 광주 동구에서 가격이 올랐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남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인 0.02%보다 0.01%p 낮아진 수치다.

전남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9월 초 0.03% 상승한 데 이어 9월 둘째 주 0.05%까지 오름폭을 키웠지만 이후 0.02%, 0.01%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최

근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나 가격 상승 속도는 점차 완만해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나주시와 목포시가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나주시는 빛가람동과 금천면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0.07% 상승했다. 목포시도 산정동과 옥암동을 중심으로 0.06%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0.12% 올랐지만 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남광주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며, 지방 전체의 보합 흐름 속에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수도권과의 가격 흐름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0.09%, 경기는 0.15%, 인천은 0.02% 상승했다. 경기와 서울을 중

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다.

전세시장도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줄었다. 전남광주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0.01%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 0.02%보다 0.01%p 낮아졌다.

전세가격은 9월 초 0.01% 상승한 뒤 둘째 주와 셋째 주 각각 0.02% 올랐으나, 9월 넷째 주 들어 다시 0.01%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지만 속도는 다소 둔화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목포시가 0.05% 상승했다. 용당동과 용해동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광주 동구도 산수동과 용산동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03% 상승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창작콘텐츠IP 사업화 기회 확대

콘진원, 내달 ‘비즈니스 상담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윤지, 이하 콘진원)은 오는 11월 18일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6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고, 신규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함께 사업화할 바이어를 모집한다.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은 창작자가 멘토와 함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 나가는 현장 밀착형 동반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전 창작 경험을 통해 창의인재가 콘텐츠 창작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개 플랫폼 기관과 300여 명의 멘티가 참여하고 있다.

상담회에는 창작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수료생과 멘티가 개발한 콘텐츠 지식재산(IP) 40종이 소개된다.

분야별로는 영상·애니메이션 16종, 웹툰·스토리 12종, 게임 7종, 음악·공연 5종이다.

영상·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론크리트 저편의 세계’ 지구를 떠나려던 두 청춘의 SF 재난 로맨스 시리즈 애니메이션 △‘드라판드’ 타임루프 물리코스터에 갇힌 스텐트우먼의 공포·코미디 장편영화 △‘피드’ 무명 배우가 리얼리티 쇼 스타로 거듭나며 분열하는 심리 스릴러 등 총 16종 지식자산을 선보인다.

웹툰·스토리 분야에서는 △‘첫사랑에 실패한 마녀는 화친혼을 원한다’ 네이버 시리즈 완결 웹소설(214화) 원작의 동양풍 로맨스 판타지 △‘좀비캐타워’ 좀비소굴이 된 초고층 타워에서 가족인 고양이를 구하려는 킬러의 액션 서바이벌 △‘닥터 허프론 : 달이 뜨면 찾아오는 구원자’ 천재 의사가 독에 당한 태자를 구하며 권력 체제를 흔드는 동양풍 메디컬 로맨스 등 총 12종의 IP를 선보인다.

게임 분야에서는 △‘미스티컬 데몬 팜’ 데몬 수집·농장 경영·던전 크롤링을 결합한 픽셀아트 농장 게임 △‘파멸의 오타쿠’ 현실과 사이버 두 세계를 오가며 사건을 체험하는 멀티엔딩 어드벤처 △‘글래시아’ 얼어붙은 대륙이 녹아내리는 세계를 다룬 로그라이크 탐방 슈팅 등 총 7종의 IP가 참여한다.

음악·공연 분야에서는 △뮤지컬 ‘늑대들’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으려는 존재들의 시대극 우화 뮤지컬 ‘타이프오버’ 기억과 기록, 해석과 진실의 간극을 묻는 2인극 창작뮤지컬 △뮤지컬 ‘홈 스위트 홈’ 삼촌의 정체를 둘러싼 B급 킬러 드라마 창작뮤지컬 등 총 5종의 IP를 선보인다. 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